



파킨슨씨병 국제 심포지엄

● 일시 : 3월23일~26일 ● 장소 : 영국 런던

파킨슨씨병의 병인과 진단기술,
최신 치료방법의 연구결과 발표및
최신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지난 3월23일부터 4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차 파킨슨씨병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자를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하여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파킨슨씨병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Parkinson's disease)은 여러 신경과적인 질병 중에서도 파킨슨씨병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국제학술회의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써 올해 12회를 맞는다. 신경과학에는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이 학술회의는 주로 파킨슨씨병의 병인 및 진단기술, 최신 치료방법의 연구결과 발표 및 최신 정보교환을 주 목적으로 한다. 올해에는 약 2백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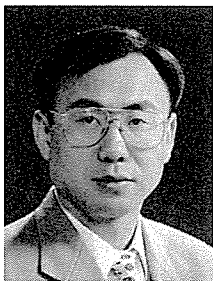
논문 2백여편 발표

필자는 국제학술회의 발표 경험을 갖고 연구분야의 최신 동향을 살피기 위해 이번 학회에 참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인원은 10여명이며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물론 우리나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기는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애로가 많다. 그러나 국제학술

회의가 학술교류의 장이며 그 발표 논문수는 바로 국력의 지표가 되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의 석학들에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의학자들의 더욱 많은 연구와 노력은 물론 이러한 학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하는 제도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데에는 왕복 교통비, 숙박비, 참가비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과학자 한 사람의 경제 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도 발표할 논문을 쥔 채 참가경비를 댈 경제적 여력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으나, 다행히 한국과학재단의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얼마간의 참가경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이번의 발표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킨슨씨병은 사지, 특히 손의 휴식시 떨림현상, 동작의 완서, 근경직 등을 주 증상으로 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뇌 흑질세포의 변성 및 소실로 말미암아,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중재로 하는 뇌 선조체와의 신경전달이



李根鎬

〈단국대 의대 신경과 조교수〉

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 상기 제증상으로 인해 환자는 서서히 운동 및 일상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종래에는 치매 또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가 되어 사망하는 매우 불행한 질병이다.

발병률 서양노인 1%차지

서구에서는 노인 인구의 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유병률이 높으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노인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으며 더욱이 일부 의료인들중에는 병인 및 병태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서도 많은 환자들에게 잘못된 진단을 내려 환자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민간요법이나 한약에 의지하면서 계속 질병에 고통받게 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매우 불행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애틀랜타올림픽의 개회식에서 전프로권투 세계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씨병에 걸린 모습으로 성화를 점화하는 모습을 세계인들 모두가 보았거니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당당히 병과 싸우는 모습을 드러내 보인 것은 많은 다른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감격적인 장면이었다. 그런 한편 우리 의학자들로서는 새로운 세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조차 이 병이 아직 정복되지 못한 현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그를 안쓰러운 마음으로 지켜 보아야만 하였던 것이다.

뇌 흑질세포의 변성 원인에 대해서 지면 관계상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에겐 활성산소인자가 관여

하여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생체 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최근 유력하다. 이번 학회에서도 이러한 뇌 흑질세포의 변성 원인에 대한 여러 연구 발표가 있었다.

첫째날인 23일에는 미국 NIH의 Polymeropoulis교수의 유전성 파킨슨씨병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는 우성으로 유전되는 가족성 형태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여 이 병의 병인을 밝히는 데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영국 King's college의 Jenner교수는 MPPT라는 물질의 도파민계에서의 대사산물인 MPP+가 신경독성물질로 작용하여 파킨슨씨병을 일으키는 실험동물 모델에서 뇌세포의 변성은 활성산소를 매개로 한 세포독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보아 향후 병의 원인 및 치료에 지름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학회 둘째날인 24일에는 세계신경생리학회 회장인 C. H. Lüking 교수의 파킨슨씨병의 진전현상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파킨슨씨병 환자의 진전현상과 다른 질환에서의 진전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근전도 및 뇌파 등을 이용하여 그 병태 생리를 꼼꼼하게 분석한 연구는 매우 경이로웠다. 다음날에는 저자도 발표를 하였는데 환자들에게서 많이 호소되는 증상인 현훈증에 대한 전정기능검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 병의 진단 및 분류에 전정기능검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 분야는 의학계에서 아직 생소한 기능검사분야이므로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Lüking교수로부터도 공동 연구로 제의받는 등 성과가 많았다.

학회 넷째날에는 이 병의 치료에 관한 많은 발표가 있었다. 이제까지는 파괴된 선조체의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전구물질인 도파를 투여하거나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를 투여하여 왔으나 신경세포의 변성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증량할 경우 이상운동증, 정신이상, 자율신경실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 이의 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의 개발이 큰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번 학회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COMT억제제가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파킨슨씨병도 정복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COMT억제제 좋은 효과

학회 장소가 런던이었던만큼 함께 참가한 우리 의학자들과 함께 영국의 각종 건축물들과 기념물들을 관광할 기회가 있었다. 일찍이 인도, 동남아 등지의 식민지에서 착취하여 얻은 부로 쌓아 올린 건조물들이 오늘날에는 영국인들의 큰 관광 수입원으로 되어 있음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들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 그런가하면 근세사에 영국이 한일관계에서 연출한 불행한 역할에 관해 여러 생각이 오갔다. 바로 일본이 조선을 강점할 때에 영국은 영일동맹으로 일본편을 들어주지 않았던가. 제1차 세계대전 후 우리 민족이 3.1운동으로 독립을 강력히 원하였을 때에도 영국은 자기 식민지를 내놓지 않기 위해 일본의 한국 계속지배를 눈감아 주지 않았던가. 만일 그 당시 조선이

과학이 발달하여 일본보다 든든한 우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민족에게 그러한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 차례 국제학회에 참가하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일본은 의학을 비롯한 과학기술을 크게 발달시켰고 구미와 학술교류를 활발히 하여 이런 국제회의에서 세계 석학들과 돈독한 우의를 굳히고 어깨를 겨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치 근세 조선의 쇠국정책처럼 이러한 바깥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입으로는 극일을 외치면서도 국제학회에서 일본에게 최신 의학의 발달에서 뒤지고 있는 현실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구태의연한 민간요법,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법 등에서 의료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점이다.

국내에서 신경과 환자들의 획기적 치료법으로 주장되고 이에 따라 수요가 엄청난 한방치료법이 있다면 마땅히 국제 의학계에 내놓아서 몇몇이 검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신경과학의 국제회의에서 세계 의학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한의사들은 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으며 한의사에 의해 쓰여지고 해외 유명 신경과학 학술서에 발표되어 인정을 받은 논문도 보지 못하였다. 이미 신경과 분야에서만도 분자생물학, 유전학, 약리학, 생화학 등 첨단 과학 지식에서 하루가 다르게 진보된 논문을 내놓고 있는 일본 의학자들이 활개치는 회의장을 보면서 이러다간 또다시 근세 조선처럼 우리나라 과학이 일본과의 경쟁에서 탈락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학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에서 촉망받는 학자들이 국제 학회에서는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씁쓸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한의학이 21세기의 한국의료와 의학발달을 위해, 단순히 조상들에게서 전래되었다하여 양방과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온지 1백년이 넘는 서양의학은 동서양의 구별을 뛰어 넘어 명실공히 세계의학이라고 불리워질 정도의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 놓았다. 수 천년의 민간요법이나 동의보감으로도 한반도에서 퇴치하지 못한 천연두 등 역병들이 근세에 양방을 수입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퇴치된 하나의 사실만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양방이니 한방이니 하는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일본처럼 양·한방 단일화를

더욱이 많은 한방병원에서 의과대학을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초음파기기를 비롯한 서양에서 수입된 의료기기를 다루려 하고 한의학자들이 매스컴에 서양의학책을 끼고 나와 서양의학용어들을 사용하여 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미 의료의 양·한방 일원화는 한의사들에 의해 먼저 실행되고 있는 감이 든다. 이런 사실들로 보아 이미 한의학의 연구자들은 의학자로서 전통적인 동양의학만 지켜나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세계 의학계에도 합류할 수 없는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같이 안타깝게 생

각된다. 무엇보다도 개탄할만한 사실은 양·한방 분리로 인해 많은 신경과 환자들이 병원과 한방병원을 오락가락하면서 의사들에게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의학자들도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에 대해 연구할 기회를 놓치므로써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자꾸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의학자들이 여러 노벨상 수상자를 내고 있는 것은 일찍이 양·한방을 합치고 과학기술에 입각한 의학 육성을 택한 그들 근세기 정책 입안자들의 과학에 대한 혜안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도 일본의 의학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양·한방을 단일화하고 의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방 지식에 대해 체계적인 검증을 하여 과학적 유의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도록 하는 한편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승격시키고 한의사들에게도 의학교육 후에 정식 의사 및 전문의 자격을 주면서 그에 맞는 책임을 주어 21세기 국제 사회에 과학자로서 몇몇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올림픽까지 개최하였다면서도 과학분야의 국제 학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진국들은 노령화 사회를 맞는 21세기에 신경계의 노화에 수반된 질환에 대한 치료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신경과학 연구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면에서 새로운 세기에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참가한 우리 의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⑧